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단법인 '동련'으로 도약

“불교교육연구소 발족해 어린이 포교 전문성 높일 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대불어)가 임의단체의 한계를 벗어 던지고 11월 11일 사단법인 '동련'이라는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날로 침체해가는 어린이 포교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포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해 온지 3년만이다.

이로써 사단법인 동련은 지도자 양성 교육에 전담하는 대한불교사대학과 대불어를 부설기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게 됐다. 특히 불교교육연구소를 발족시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동심리, 미술 치료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 20여명을 연구원으로 모집, 불교교육연구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사단법인 동련은 대불어 회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그동안 꾸준히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쏟아온 스님들로 이사

구성을 마쳤고 119명의 회원이 등록된 상태다.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1만원 구좌 후원회원 1000명 모집을 목표로 후원회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정의 안정이 곧 사업의 질적 향상과 영향력으로 이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원회 활성화로 재정확보

역사탐방·국제교류 등 추진

대불어의 사단법인화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린이 포교 현실을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운영 중인 여러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포교의 파급력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단법인 동련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외에도 불교관련 역사탐방, 국제 교류사업, 불교 포교를 위한 전문지도자 교육 및

양성, 불교현대화를 위한 학술연구 및 장학생, 불교문화장담을 위한 연구 및 출판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또 각종 문화사업과 전국지도자연수회, 전국구연동화대회, 우수지도자 포상 등으로 어린이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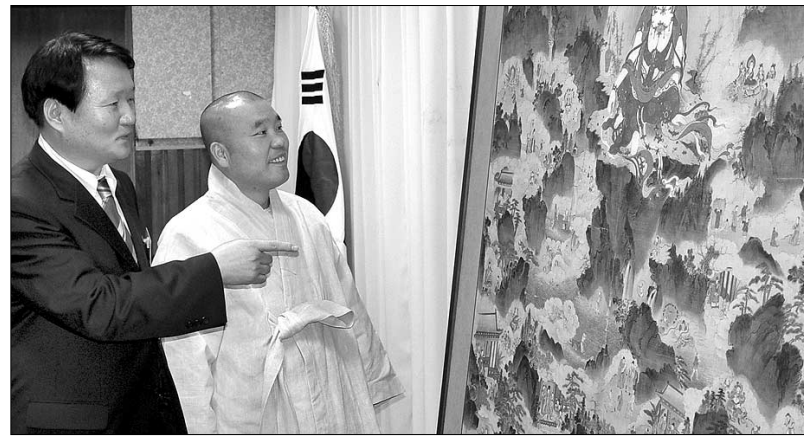
특히 사단법인화를 계기로 창립 20주년이 되는 내년을 어린이포교의 새로운 원년으로 선포하는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행사를 기획중이다.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은 “사단법인 설립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어린이 포교에 열정적으로 임해온 모든 분들의 이뤄낸 성과”라며 “사단법인화는 미래불교의 빛이 될 어린이 포교 활성화와 위한 기초를 다진 것이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포교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관세음보살 32응신도 현상모사 복원

영암군·도갑사, 국제학술대회 개최...10여 논문 발표



김범수 교수(사진 왼쪽)가 도갑사 주지 월우 스님에게 현상모사 복원된 응신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불교문화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현상모사 복원됐다. 범해문화재연구소(소장 김범수)는 도갑사 관세음보살 32응신도를 모사복원하고 지난 11월 11일 전남영암문화원에서 일반에 첫 공개했다. (본지 551호 보도)

이날 김범수 소장은 “제작 당시의 기법을 이용해 원형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현상모사복원은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확보하는 새로운 방안이다”고 말했다.

‘도갑사 관세음보살 32응신도’는 조선 인종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왕실에서 제

작해 도갑사 대웅전에 봉안했으나 전란중에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 일본 교토의 정토종 지은원(知恩院)에 소장돼 있다.

영암군과 도갑사의 노력으로 모사복원된 불화는 지난 3월부터 복원작업을 시작해 지은원 현지에서 색조견표를 만드는 등 8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도갑사 주지 월우 스님은 “새로 복원된 관세음보살 32응신도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광주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갖고 도갑사 대웅전에 봉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종교사학회(회장 양은웅)는 32응신도 모사복원을 기념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관세음보살32응신도의 예술세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원복 국립광주박물관장의 ‘관세음보살32응신도에 나타난 산수화 양식’, 김승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관세음보살32응신도의 불교회화사적 의의’, 우메야마 히데유키(梅山秀幸) 일본 모모야마가쿠인대학 교수의 ‘저주물(呪物)로 본 관세음보살32응신도’ 등 1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글·사진/영암=이준엽 기자

“음성공양 통해 힘과 용기를”

27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불우청소년동기 합창제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합창제가 11월 27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합창제 모습.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제5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불교합창제-공심 공제 돌 아닌 노래’를 오는 11월 27일(일) 오후 3시 광주 5·18기념 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합창제에는 혼성 합창단(단장 박순례)과 어린이 합창단(지도교사 이선안)이 출연해 ‘선법가(禪法歌)’와 아름다운 지구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한 음악극 ‘반디의 여행’ 등을 공연한다.

혜월 스님은 “음성공양을 통해 평소 소외되고 외로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공력으로 생긴 수익금 전액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1997년부터 4회에 걸쳐 소년소녀 가장 231명에게 5585만원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다. (062)373-8801

이준엽 기자

무등산 사찰들 생명나눔 실천

광주 무등산에 자리한 증심사(주지 진화)와 문빈정사(주지 석장), 무등예술봉사(주지 이현)가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를 통해 모금된 성금과 헌혈증서를 환승전담병원 환우

들에게 전달해 화제다. 11월9일 생명나눔 이사 진화 스님과 임직원들은 성금 500만원과 헌혈증서 500매, 휠체어 1대를 강형근 원장에게 전달하고 투병중인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062)234-6602

이준엽 기자

불국사, 계원분교수련장 개원



11월 12일 열린 불국사 계원분교수련장 개원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경주 불국사(주지 종상)가 포항시 계원리 바닷가에 불자들을 위한 수련장을 마련하고 11월 12일 개원식을 거행했다.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개원식에서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국사 계원분교수련장은 불국사를 찾는 불자뿐 아니라 전국 모든 불자들이 수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국사 계원분교수련장은 지난 4월 포항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지 5000평, 건평 500평 규모의 2층 총6개 학급을 수용했던 폐교를 임대해 마련한 것. 계원분교수련원은 2층 3개 학급을 하나로 묶어 약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수련장과 1층에 최신설비의 샤워실을 갖추고 있다. (054)746-9912

배지선 기자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술대회

석정학술상 수상자 발표도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박하)는 11월 11-12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석정학술상 첫 수상자를 발표 시상했다.

인간문화재 제48호 불모인 석정 스님, 통도사박물관장이자 불교미술사학회 학회장이인 박하 스님을 비롯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박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젊은 학자들의 열린 사고가 돋보이는 학회에서 석정학술상까지 선정함으로써 불교미술사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석정학술상 수상자로는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와 신용철 통도사성보박물관 수석학예사가 선정됐으며 이 두 사람의 ‘의식집을 통해 본 오성법음집고찰’과 ‘밀양영안사지 승탑연구’가 공동 수상했다. 특별공로상은 88년도부터 <한국의 불화> 편찬과 관련 사진작업에 꾸준히 동참해온 송천 스님이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여래선원, 농이위한 법당 마련

첫째 셋째 주 수화법회 진행

부산 여래선원(주지 도원)은 11월 11일 13일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농이불자들을 위한 법회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11월 13일 여래선원에 농이불자들을 위한 법회 공간이 마련됐다.

이날 개원법회를 가진 여래선원은 해운대 썬프라자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농아불자회 지도법사인 도원 스님이 주지를 맡았다. 주지 도원 스님은 “오늘 여래선원 개원은 그동안 법회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농아불자회가 ‘법회 공간 마련’이라는 숙원을 이룬 것”이라고 기뻐했다.

감사 주지 혜중 스님과 일반 불자, 농아 불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혜중 스님은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래선원은 매월 1, 3주째 일요일 10시 농이불자들을 위한 수화법회를 열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일반인 대상 수화교실도 연다. (051)9393-114 천미희 기자

선각종, 재소자 독경대회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11월 3일 목포교도소 강당에서 제1회 목포교도소 수용자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600여명의 수용자가 지켜본 가운데 열

린 이날 독경대회에는 12명의 수용자가 출연해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경전을 독송했다.

독경대회에 앞서 정암 스님은 법어에서 “업장은 참회로 소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독송하며 참회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암 스님은 독경대회 참가자와 수용자들에게 식용품을 전달하고 이날 말까지 교도소 법당을 새롭게 꾸미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대구불교계 노인복지 앞장

대구불교계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앞장서면서 고령사회 지역 노인복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구 사회복지법인 화성복지재단(이사장 권희은)은 11월 15일 대구 수성구 상동 무료노인전문요양원인 화성전문요양원(원장 명범)을 개원했다. 일광욕실, 물리치료실 등의 최신설비를 갖춘 화성전문요양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 75명을 모집 예정이다. 또한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복지재단(이사장 박원근)은 11월 12일 무료노인전문요양병원 무량수전을 건립하기 위한 기공식을 남구 북명동 영남불교대학 옆 공사현장에서 열었다.

무료노인전문요양병원 무량수전은 대지 1139평에 건평 2,620평 지하2층, 지상 4층의 대규모로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썩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썩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 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썩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 있다.
- 타이머 정적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썩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썩뜸을 뜸 수 있다.

오행썩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썩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정적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썩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흔기 내부에 온열판 정적으로 썩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살리온 재질로 되어 있어 끈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정적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흔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흔기

의료용구로 허기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타이머

ISO 9001:2000

대리점 및 썩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오행썩뜸기, 음양 썩뜸기, 오행좌흔기 등을 썩뜸방 및 사무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직접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연비학 본사의 교육)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 해염분** 천둥 번개와 이온이 공기 중을 정화하는 원리를 도입하여 살균 100% 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 해염분** 미국과 캐나다 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연구원 등의 시험 합격인증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을 받고 있습니다.
- 해염분**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재처리된 정화된 공기를 다시 살균합니다.
- 해염분** 추운 산악 스키장과 카드플레이드의 세척만으로 번거롭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소음**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 가능함
-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 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연구원 등의 시험 합격인증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을 받고 있습니다.
- 조절기능** 5단계에서 84단계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성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시킨다. 리빙에어는 아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중성을 제거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써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에요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업체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페인엔 크기로 84평까지 청정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도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인정 오존(O₃)) 안전수치 0.05ppm 이하
-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장
-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www.o2air.com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찰 및 복지기면 꼭 필요함입니다.